

# 성공회담 기원하듯 60문 대포에 꽃다발, 곳곳 올리브 장식

**‘세기의 담판’ 앞둔 센토사섬 표정**  
 ‘회담장’ 카펠라호텔, 외부인 통제 양국정상 숙소엔 보안검색대 설치



6·12 북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9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서쪽 끝 실로소 요새의 포구에 꽃다발이 꽂혀 있다. /연합뉴스

6·12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 세계가 싱가포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기의 담판’이 될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질 센토사 섬은 회담의 성공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들의 염원을 담은 듯 ‘평화의 섬’이 됐다.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 회동’을 갖는 센토사 섬의 서쪽 끝 실로소 요새에는 60문의 대포 포구마다 꽃다발이 즐비하다.

또한 평화를 의미하는 올리브 장식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 요새는 1,2차 세계대전 당시 해안포대로 쓰인 후 1974년 군사박물관으로 전환돼 관광지가 됐다. 이번 회담을 위한 마련된 꽃 장식들은 회담

이후인오는 13일까지 놓여질 계획이다. 회담장으로 쓰일 카펠라호텔은 붉은색 지붕의 5성급 호텔로 행사준비 막바지에 이르며 외부인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호텔 안에는 양국 정상이가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솔길들도 여럿 보인다.

양 정상이 회담기간 동안 묵는 숙소들은 센토사섬에서 북쪽으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샹그릴라 호텔에는 10일 새벽 성

조기가 싱가포르 국가와 나란히 게양됐다. 호텔 안팎의 경비는 다소 강화됐으며, 보안 검색대도 처음으로 설치됐다.

호텔 연회장인 아일랜드 볼룸은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곳에 차단막이 설치돼 이번 회담과 관련한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도 방탄 경호단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경호원들

이 눈에 띄었고, 검문검색도 진행중이다. 호텔 정면과 차량 통행로 등도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리센룽 총리가 김 위원장을 10일, 트럼프 대통령을 11일에 만난다고 발표했다. 면담 장소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통상 싱가포르 총리나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날 때 사용하는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는 일정 외에 11일까지 각자 휴식을 취하며 회담 전략을 가다듬고 12일 오전 역사적인 회동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9일(현지시간)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도중 캐나다를 떠나 싱가포르로 향했다. 그는 트위터에 “북한과 세계를 위해 진실로 멋진 결과를 성취할 기회를 갖게된 싱가포르로 가는 중이다”고 글을 올렸다.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이번 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BBC는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한중일 3개국 시선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은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과 전통적인 동맹국인 중국은 어떤 협상에서도 전략적 이익을 버리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북통일과 양국 경계의 미군주둔이 중국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이번 회담을 통해 평양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한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기의 담판’이 될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싱가포르에선 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싱가포르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북한기자가 나오자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 中 이외 서방무대 전격 첫 선 자본주의 이해, 선대와 달라

**김정은, 국제무대 화려한 데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싱가포르에 첫발을 내딛는 길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오는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나들이는 이웃인 중국 방문 두 차례 뿐이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을 다녀갔지만, 서방 무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단순한 데뷔가 아니다. 지난 70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적국’ 미국의 최고지도자와 화해의 손을 잡을지 결단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친이 물려준 ‘가난에 찌든’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강한 욕망과 ‘체제 수호의 강력한 보검’으로 내세웠던 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다. 전자를 취하고 후자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대장정에 나선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10대 중반에 최고의 선진국 스위스의 베른에서 평범한 공립 학교에 다니면서 선진 문물을 익혔다.

스위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사 등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한 다양한 수업은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10대 김정은 위원장의 두뇌에 고스란히 입력됐다.

황태자의 신분은 숨기고 평범한 외국인으로 미국과 서방에 대한 교육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받았던 스위스 시절의 교육은 그가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후 정치 행보에 상당히 녹아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내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다”는 열망을 표출해왔다. 2014년 시장의 완전 허용이라는 과격적 조치를 한 것도 마식령스키장, 원산 관광지 건설 등도 스위스에서 경험이 영향을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릴 적 받은 자본주의 교육은 그에게 정치적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고 주민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 가진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늘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성장에 청년시절의 프랑스 유학이 지대한 영향을 준 것과 유사하다.

두 차례의 남북 및 북중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제의한 것으로, 그가 주도적으로 정세 변화를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결국,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과격적 스타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의 결단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담판으로 이어질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진희 기자

www.koreanair.com

2019년 6월  
세계 하늘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세계 항공업계의 UN총회인 IATA 연차총회를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항공이 유치하였습니다

**75**  
IATA ANNUAL  
GENERAL MEETING  
WORLD OF TRANSPORT NEWS  
SEOUL, 2-4 JUNE 2019

**75차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연차총회** 일자: 2019년 6월 2일(일)~4일(화)  
세계 290여개 항공사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세계 항공 발전을 논의하는 IATA 연차총회를 대한항공이 정성으로 준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의 위상을 높여나갔습니다

**KOREAN AIR**